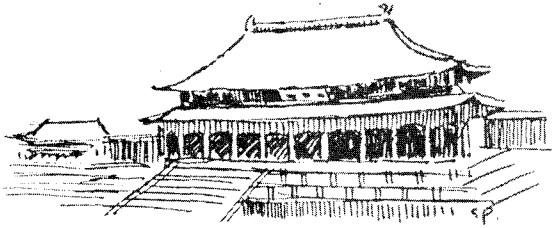


北京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임 경 순 교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1. 방문목적

작년(1989년) 10월 8일에서 10월 14일까지 북경에서 개최한 아세아와 남미에서 축산과 가축위생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응용에 관한 회의(Global Workshop on Biotechnology applied in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in Asia and Latin America)에 참석하게 되어 북경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게되었다. 이회의에는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및 필리핀의 7개국,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알제틴, 브라질, 칠리, 콜롬비아, 큐바, 멕시코 및 우루과이의 7개국, 초청국으로 호주, 체코, 불란서, 서독, 일본, 영국 및 미국이 참석하였다.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축산과 수의 각 2명이 그리고 초청국에서는 특강연사 각 1명이 참석하였다.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참석한 모든 대표들은 각각 자기나라의 축산과 수의 분야에 있어서 생명공학의 응용 상황을 보고하였고 그중 몇 사람은 자신들이 그간 연구한업적을 발표하였으며 초청국에서 온 사람들은 특강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 모임은 UNDP(유엔개발계획)사업으로 FAO의 지원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1988년에는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바 있다. 본인은 국가보고와 연구발표로 생쥐의 초급속동결법을 소개하였는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이 회의는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동남아세아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어서 축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가축질병의 효과적인 제어를 지향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므로 지식의 축적과 활용을 기하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앞으로

지식의 교환은 물론 상호간의 훈련계획도 마련될 것이며 지역에 연구센터를 두어 훈련을 갖는것도 계획되어 있는데 동남아세아의 연구센터는 북경에 두기로 결의를 보았다.

2. 하늘에서 본 중국땅

그 하늘에서 본 중국땅 대한민국과 중국은 정식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국사증(VISA)은 일본 중국영사관이나 홍콩 중국경사관에서 받도록 되어있다. 한국에서는 본인과 가축위생연구소의 안수환과장이 같이 가게되었으며 우리는 동경에서 하루밤을 자고 중국영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발행받아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 상해를 거쳐 3,800km의 북경으로 향했다. 나리타에서 아침 9시 출발하였는데 유례없이 좋은 날씨에 창가 좌석에 앉게되어 중국 본토에 상륙하여 북경에 이르는 대륙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 한가지 놀란것은 높고 낮은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토의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것이었다. 집단 농장을 이루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경지정지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완성시켜 놓은것으로 생각된다.

북경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에 북경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멀리서 보이는 공항건물이 초라하게 보였고 외국비행기라고는 내가 타고 도착한 그 뿐이 었다. 국제공항이라고는 하나 국내공항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서방제국과의 정기항로가 개설된것이 많지 않거나 있다고 치더라도 빈도가 적었거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행기의 탑승구를 빠져나와 건물 대합실에 들어서 보니 너무나 초라 했다. 탑승구가 4~5개 정도이고 평행으로 달리는 에스카

레타는 운행이 중지되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대부분의 손님은 일본 사람들이었고 극히 소수의 중국인이 끼여 있었다. 입국수속을 밟고 물품통관 절차를 밟는데 의외로 간단한데 놀랐다. 통관사 한 사람이 투시기계로 내부를 보는 것으로 모든 손님의 짐이 간단히 통관이 되었다. 반입물품에 대한 규제가 거이 없었다. 공항 건물을 빠져 나오니 어스름한 청년이 핏켓트를 들고 우리를 찾고 있었다. 이 청년의 안내로 공항택시를 타고 북경시로 향했다. 택시는 일본 중고차로 갑자기 우리까지도 초라하게 된 느낌이 었다. 청년은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간간이 알아 듣기힘든 영어로 이야기를 주곤 하였다. 나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로 좌우를 유심히 살펴 보았다. 시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2차선의 도로를 줄곧 달렸는데 간혹 깜박이 신호등이 있었고 청, 적, 황색의 정식 신호등은 없었다. 도로 좌우에는 과수원, 포프라 숲, 아직 벼를 베지 않은 논들이 눈에 띈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전정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어려운 상태로 있는 것이 눈에 띈었다. 간혹 일본사람이 와서 짊어놓은 합작 공장들이 보이곤 했다. 북경시에 들어서니 갑자기 길이 8차선으로 변하고 많은 자전거의 인파가 눈에 띈었고 농산물을 운반하고 있는 트럭들이 많이 보였다. 모든 차량 뒤에 차량번호가 크게 적혀져 있는 것이 동원체제와 관련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시내버스는 간간이 다니고 있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서민 아파트형의 10~12층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많이 건설되고 있었다. 약 시간 반쯤에 숙소인 友誼호텔(Friendship Hotel)에 도착하였다.

3. 북경시내

북경의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말하고 있다. 평야에 위치하고 있어 산을 볼수가 없었다. 시내 대부분의 길은 8차선으로 되어있었으며 천안문 광장의 길은 10차선 정도되는 것 같았다. 편도 4차선 중에서 2차선은 자전거 전용이고 나머지 2차선은 차전용으로 되어있었다. 자전거의 흐름은 출퇴근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원인인즉 회사(중국에서는 공사라고

함)마다 휴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모든 직장인이 토요일 오후 부터 일요일 쉬는 것이 아니라 공사에 따라 쉬는 요일이 정해져 있다. 이런 제도를 사용하므로 공장의 전력을 안배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경시내의 밤거리는 오일 속크대 서울 시내를 연상케하리 만큼 어두웠다. 가로등은 있으나 켜 있지 않은 곳이 많다. 천안문 앞 광장 앞거리도 마찬가지다. 북경시내의 전기와 수도사정이 나쁘다는 것이다. 공장이 늘고 아파트가 늘는데 비하여 공급량은 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수도원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내려가서 물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경시내의 교통소통은 매우 원활하였다. 신호등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정체현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인지 서두르는 일이 없었다.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없는것 같이 보였다.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려고 하면 애써 팔려고도 하지 않으며 또 팔면서도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니었다.

4. 중국인의 생활수준과 화폐단위

중국의 화폐단위는 1圓(元)=100分 1分=100分으로 되어 있다. 1\$=3.6원이므로 중국돈 1원은 한국도 200원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중국인은 간부급을 제외하고는 직종간에 봉급 격차가 적다고 말하고 있었다. 40~50대에 있는 사람이면 70~80元(20\$=14,000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들었다. 유명한 써거스 극장에 들어가 약 1시간 반 관람한 적이 있는데 입장료가 3원이었다. 운동셔쓰 상의 한벌을 17원, 36매 칼라필름 1통을 21원에 샀다. 봉급에 비해서 물가가 비싼편이고 물가 상승율이 높다고 말하고 있었다.

5. 외국인을 위한 상점과 화폐

북경시내 1개소에 외국인을 위한 상점이 있는데 이를 友誼商店(friendship shopping center)라고한다. 1주일간의 회의기간중 2번 이곳에 우리들을 대려다 주었다.

약2시간의 시간을 주고 쇼핑을하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이 상점에서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는 물건을 살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상점내 외화교환소가 있는데 \$을 元화로 바꾸어 주는데 그 元화는 일면은 한자로 다른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화폐이다. 화폐의 크기는 시중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같다. 중국인도 이 화폐를 소지하면 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이 상점의 물건은 정찰제로 되어 있고 품질이 좋고 약간 싸고 믿을 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 전용화폐로 시중 어느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나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을 때는 일반 화폐를 받게 된다.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외국인 전용화폐는 \$로 교환해 주지만 일반화폐는 \$로 교환해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화폐로 남는 돈은 다 쓰거나 중국인에게 인심을 쓰는 편이 좋다.

6. 사회제도

중국의 사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통제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직장과 거주지가 제도적으로 주어지며 일단 직장과 거주지가 정해지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이 어렵게 되어 있다. 식량은 배급제로 어른은 월 쌀 15kg 그리고 연령에 따라 기준이 있어 배급된다고 한다. 열료도 거주형태에 따라 다르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식구수에 따라 조개탄을 배급하고 아파트의 경우는 중앙난방식의해 열을 공급받는데 북경시내의 경우는 11월 중순부터 공급하여 3월 중순에 중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출퇴근은 대부분 년중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하루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출퇴근 때 시달리는 편이며 1회 승차 요금은 20分으로 이 경우 교통비로 직장에서 1개월 교통비의 반은 보조금이 지급된다. 북경에 거주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왜냐하면 북경시내에 직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민이 부부 만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중 1사람이 북경이외의 직역으로 전출이 되는 경우는 1년에 몇번 밖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신혼 부부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다. 요즘은 대학 졸업한 젊은이에게 직장을 주기위하여 정년 단축조치

를 내리고 있어 정년에 가까운 연령층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중국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다. 일단 퇴직을 하면 의료혜택이 없어 늙은 부모를 가진 자식들은 부모가 병이 났을 때는 많은 경비가 든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7. 중국농업과학원

중국농업과학원은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과 같은 기관이다. 1957년 설립되었으며 29개 연구소, 3개 연구센터, 3개 연구실 및 1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원은 총 10,586명인데 이 중 고급연구원이 5,063명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간부가 812명, 고용원이 4,700명이다. 우리나라의 축산시험장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畜牧研究所가 있다. 회의 기간중 이 축목연구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었다. 시간제약으로 번식연구실의 현장과 연구실 만을 돌아 보았다. 이 연구소는 1957년 설립되었는데 북중국농업과학연구소 축목계가 독립발전했으며 1970년 靑海省으로 이전후 1979년 현재의 북경시내로 이전 오늘에 이르렀다. 총 276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연구직은 189명이다. 연구직중 고급연구직은 42명, 중급연구직은 92명, 초급연구직은 5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본 연구소는 품종자원, 유전육종, 사료, 영양, 번식, 양돈, 가금, 양우 및 축산물 가공의 10개 연구실로 기능이 나누어져 있다. 가축번식연구실에서는 소와 돼지의 수정란이식, 난자내 핵이식, 수정란의 동결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특히 미니돼지를 사용한 수정란이식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8. 만리장성

축목연구소를 견학하고 바로 일행은 말리장성 관광길에 나섰다. 2대의 미니버스에 분승하여 북쪽으로 약 2시간을 달렸다. 훌륭한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줄곧 4차선의 넓은 도로를 달렸다. 신호등은 거의 없었으며 차량의 정체도 없었다. 평지를 지나 산길로 들어섰는데 산세는 험한 편은 아니었으나 토질이 나쁜 탓인지 울

창한 숲은 거의 없고 잡목들만 보였다. 간혹 작은 산성들도 눈에 띈었다. 옆으로 달리는 기차는 가파른 언덕을 향하여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드디어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장이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도를 따라 20분정도 걸어다니 만리장성 대표소의 작은 광장이 있었다.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구경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한국사람들 중에서도 설악산 구경을 못한 사람이 있는것처럼 중국사람중에서도 만리장성구경을 못한 사람이 많은것 같았다.

관광객중에는 신혼부부, 군인, 가족동반, 외국인 등 여러층의 사람으로 혼돈되어 있었다. 입장권을 단채로 구입하여 받았는데 입장권과 같이 만리장성 관광증서를 주는것이 인상적이 었다.

작은 광장에는 만리장성에 관한 설명판이, 한문과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략적 내용은 길이가 6,000km, 높이 7m, 넓이 6m로 중국의 5성을 지나며, 조금씩 조금씩 축조되었던 것을 연결한것으로 되어있었다. 일단 성곽에 들어가면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걸어서 양산정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왼쪽 보다는 오른쪽에 인파가 많아 우리 일행도 오른쪽을 택했다. 모두들 관광 보다는 사진을 찍는데 열을 올렸다. 5m넓이의 통로가 산능선을 향하여 무한정으로 굽이 굽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성밖에는 황량한 벌판을 지나 산이 아득히 바라 보였다. 가파르게 오르는 부분은 층계로 되어 있고 성벽에 손잡이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녔는지 층계가 물골 모양과져 있는것이 인상적이 었다. 앞으로 중국이 개방이 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려면 우선 층계부터 수리를 하여 말끔이 단장해야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었다.

9. 定 陵

만리장성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북경시에서 서북쪽에 50km 지점에 위치한 13개의 陵 중하나인 定陵을 구경하였다. 이들 陵들은 명나라시대(1409-1644)에 건축된것으로 13분의 황제의 陵으로 알려져 있으며 定陵은 이중하나로 유일하게 원형그대로 발굴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이 陵은 명나라 13대 황제 주이준의

무덤이다. 이 陵으로 가는 길 좌우에는 12개의 사람 石像과 24개의 동물 석상이 있다. 1957년 원형그대로 발굴되었는데 지하 27m에 총 362평의 석조건물로 피라미트식으로 큰돌을 23층으로 쌓은 3개의 방과 2개의 통로로 되어있다. 바닥과 벽 그리고 천장 모두 돌로되어 있으며 통로의 대문은 대리석으로 남대문의 대문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있었다. 방의 크기는 길이 32m×넓이 6m×높이 7.2m로 웅대하다. 내부에 있던 부장품들은 모두 박물관으로 이전되었고 모조품들이 모형으로 그자리에 놓여 있었다. 주이준황제는 10세때 즉위하여 22세때 능을 축조하기 시작하여 6년을 소요하여 완공하였는데 그당시 은 301톤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총동원 인원이 5,000만명이었다고 하였다. 이금액은 당시 국가예산의 6년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10. 가정방문

미국 코넬대학에서 만난 북경대학의 鄭行교수에게 미리 연락을 하여 북경에서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鄭行교수의 부친은 해방전 美國 코넬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몇해 전까지 축목연구소의 소장을 하신 중국축산의 원로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본인을 자기집으로 저녁식사 초대를 해주어 귀한 가정방문의 기회를 가지게되었다. 5층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회의가 개최될 중국농업과학원 경내에 있었고 友誼호텔과 가까운곳에 위치하여 도보로 방문할 수 있었다. 鄭行교수의 집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하였다. 이분의 성함은 鄭丕留(Cheng Peiliu)로 80이 넘는 노장이셨는데 자상하시고 영어도 유창하셨다. 귀가 좀어두어 보청기를 사용하긴 했으나 불편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아파트는 15평내외의 우리가 말하는 서민 아파트 구조였는데 축목연구소 소장 대우로 배정해 준것이라고 하였다. 조그만한 서재에는 소박한 책상이 있었고 벽에 부착된 책장에는 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있었다. 이분 이 저술한 中國의 家畜品種이 높이 평가되어 FAO 후원으로 영문, 스페인, 불어판이 제작되었는데 몇권의 原板이 책꽂이에 꽂여 있었다. 鄭行교수

외동 딸의 애교면 권유로 英文原板 1部를 본인에게 친필 서명과 함께 선물로 주셨다. 말씀인 즉 이 책은 韓國에 唯一의 책이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다. 귀국후 10부 복사판을 만들어 몇 분에게 선물로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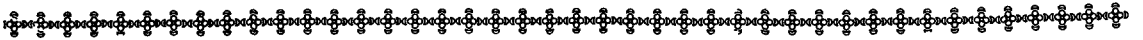
11. 인민대회장의 만찬

귀국하루전 우리일행은 농림수산부·농업과 학원 초청으로 인민대회당(Great Hall 이라고 함)에서 저녁만찬을 갖었다. 특별 초대장을 소지토록하고 이 초대장을 보여주므로 대회장입장이 허락되어 만찬회의장, 농림수산부차관, 농업과학원 차장, 축목연구소 소장이 배석하였다. 부패식이 었는데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몇가지는 그 맛이 일품이었다. 지역 연구센터를 북경

에 유치하기 위해 정치적 배려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되었다.

12. 맺는 말

이번 북경에서의 생명공학의 축산 및 가축위생에의 응용에 관한 동남아와 남미 학자들의 모임은 국가간의 정보교환과 학자간의 우의를 다지는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鄭行교수와 재회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축목연구소의 번식연구실의 연구직과 다른 省에서 온 연구직과 친분을 나눈것은 앞으로 국교정상화이후 양국 축산인 교류의 가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



알림

- 경오년 새봄을 맞아 회원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당회는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종축개량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 본회 정회원께서는 정관 및 회비 징수규정에 따라 '90년도 회비(연회비 10,000 원)를 납부하여 주시와 종축개량의 소기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서 소액환 증서나 우편대체번호 서울 서초우체국 013227-31-0519173 번으로 불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초구 서초동 1516 - 5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TEL 588 - 9301 ~ 5, FAX 582 - 3475